

예술가와 친구들

조선인도 일본인도 아닌 콧덕준, 제피 넣은 추어탕 즐겨



황민
미술평론가

재일교포 원로 화가

교토 태생, 한국말 거의 못 배워

일본화과 졸업후 염색공장 운영

70년대 평면 작업 벗어나 실험미술

부시 등 소재 '대통령과 콧' 시리즈도

정상화 소개로 박서보와 친분 쌓아

김구림 등 한국 미술인과 교류 넓혀

콧덕준(郭德俊)은 1937년 교토시 후시미구 오오카메타니 규호지에서 태어났다. 그가 태어난 언덕에서 조금 내려가면 JR 후지노모리(藤森)역이 나타난다. 현재 콧덕준이 사는 곳은 거기서 조금 더 내려와야 한다. 게이한선 스미조메(翠染)역에서 언덕을 오르다 보면 오른쪽에 콧덕준의 거처 겸 작업실이 나타난다.

콧덕준의 부친 콧이(郭逸伊)는 경남 산청군 생비량면 가계리, 모친 정향이(鄭香伊)는 대구 근처의 경산 출신이다. 이 부부는 규호지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살았다. 규호지는 지대가 높아 멀리 북쪽으로 교토 시내가 내려다보인다. 후지노모리역 위에 서서 북쪽을 향하면 히에이잔(比叺山)이 보이고 서쪽으로는 교토 분지를 둘러싼 높은 산들이 원경으로 펼쳐진다. 남쪽으로는 가까이 후시미모야마성이 늠름하게 서 있다. 소년 콧덕준은 그 풍경 속에서 하루를 보내었다.

저울 다른 작품, 구겐하임 찬사 받기도

만 산 위로 저녁노을이 지면 언덕 위에서 콧덕준을 찾는 아버지의 소리가 들렸다. "덕준아, 밥 무로 오이라."(덕준아, 밥 먹으러 오너라.) 일본인들만 사는 동네의 고요함을 깨는 너무나 큰 소리의 경장도 사투리였다. 소년은 그 투박한 호출이 조금 부끄럽기도 하였다.

당시 조선인들은 주로 교토역 남쪽의 구조, 십조에 몰려 살았다. 가모가와강 하류 근처에는 염색공장을 운영하는 조선인들도 더러 있었다. 콧덕준이 태어나 살던 오오카메타니 규호지는 가모가와강을 사이에 두고 구조, 십조와는 십리 상거다. 조선인이 거의 살지 않는 마을이었다. 그래서인지 콧덕준은 한국말을 배우지 못했다. 조선인 사회에도, 일본인 사회에서도 콧덕준은 합류하지 못했다. 고독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해방이 되던 해 콧덕준은 후지노모리소학교 2학년생이었다. 근처 모모야마소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했다. 모모야마중학교를 거쳐 히가시요카고등학교 미술공예과정 일본화과를 졸업했다. 염색공장을 운영했다. 23세의 콧덕준은 3년간 심한 폐결핵을 앓게 된다. 생사를 다투던 그는 환상을 보았다.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

1960년대 후반까지 평면 작업을 하던 콧덕준은 1970년대가 되자 개념적인 실험미술을 하기 시작했다. 1970년에는 저울 위에 저울을 올려놓아, 저울이 사물의 무게를 측정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게도 측정되는 객체가 된다는 역전의 상황을 보여주는 작품을 내놓았다. 이 작품은 당시 방일한 구겐하임 미술관의 큐레이터 에드워드 프라이에게 찬사를 받았다. 이 시리즈의 작품 중 1988년 작인 '10개의 계량기'는 현재 과천 국립현대미술관 야외에 설치되어 있다. 1971년, 어릴 때부터 매일 보던 히에이잔의 정상에 올라 공기를 채집하여 일본 전역의 미술인들에게 보냈다. 수취인이 공기를 빼낸 시간과 장소의 기록을 다시 우편으로 받는 '메일 아트' 작업이었다.

1970년대 중반부터는 '대통령과 콧' 시리즈의 작품을 했다. 타임지에 나온 대통령 후보 사진의 하반부에 저울을 갖다 댄 다음 콧덕준의 머리 옆에 카메라를 놓고 사진을 찍는다. 사진의 위는 대통령의 얼굴이 아래는 저울에 비친 콧덕준의 얼굴이 반반씩 나오게 한 사진이다. 포드·부시·레이건·클린턴 등이 등장했다. 미국 대통령으로 집약되고 상징되는 세계와 나의 관계에 숨어 있는 환상을 폭로하는 작품이었다.

외롭던 콧덕준에게 한국인 선배가 생겼다. 1969년부터 고베에 정착한 화가 정상화(1932-)였다. 정상화는 콧덕준을 서울의 박서보(1931-2023)에게 소개했다. 전남 고흥 출신의 김나나(金娜那)에게는 서울 신촌에 사는 사촌 언니가 있었다. 그녀는 박서보의 부인 윤명숙과 친했다. 윤명숙은 콧덕준과 김나나가 맺어지길 원했다. 마침 서울을 방문한 콧덕준이 신촌 창전동 박서보의 화실에 와 있었다. 김나나가 박서보의 화실을 찾았을 때, 박서보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그 옆에 콧덕준이 서 있었다.



최근 일본 교토 후시미에서 만난 콧덕준 작가. 그는 교토에서 태어났다.

〈사진 황민〉

다. 윤명숙이 찹떡을 내놓자. 콧덕준은 일체의 주저함도 없이 냅금 집어다 먹었다. 김나나에게는 콧덕준의 그런 행동이 순수한 모습으로 다가왔다.

김나나에게 콧덕준의 마음이 달아올랐다. 박서보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김나나도 콧덕준에게 호감이 있었다. 부친의 허락을 받는 일이 걸렸다. 화가와 결혼은 불안한 미래를 약속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다. 김나나의 부친은 경기도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유학한 엘리트로 세종문화회관 뒤에 서예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콧덕준의

경력을 본 부친은 매우 흠족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에서 선택 결혼을 허락했다.

1971년, 두 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스미조메역 근처의 작업실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다. 마당을 들어서면 왼쪽의 작은 집이 본채이고 정면의 큰 집은 기모노 염색공장이었다. 공장을 드나드는 직원이 최대 8명이 된 적도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교토에서 가까운 고베의 정상화를 찾아가다. 지금은 공장 자리가 응접실 겸 작품보관소로 되어 있다.

콧덕준이 한국을 처음 찾은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해방 전에 교토 후시미에서 같이 살던 작은 아버지는 진주에 정착했다. 콧덕준은 진주에 집을 풀고 분향인 산청군 생비량 가계리를 찾았다. 이때까지는 아직 한국미술계와는 아무런 접촉이 없었다.

정상화, 박서보를 통해 한국미술계와 접점을 찾은 콧덕준은 한국미술작가들과의 만남이 잦아졌다. 1973년에는 서울에서 콧, 김차섭을 만났다. 1975년 미국으로 간 콧은 서울을 들었다 다시 LA로 돌아갈 때 도쿄에 내려 신칸센을 타고 교토로 가서 콧덕준을 만나곤 했다. 만나기로 한 교토역의 출입구를 서로 잘못 알아 한 시간 동안 헤매는 동안에 콧을 찾는 구내방송이 교토역에 울려 퍼지는 소리가 벌어지기도 했다.

1973년에는 김구림(1936-)이 도쿄에 와서 2년간 머물렀다. 이미 한국에서 안면을 튼 김구림이었다. 김구림은 교토를 자주 찾아왔다. 콧덕준의 집에 며칠씩 머물기도 했다. 김구림과 함께 있다가도 염색물의 배달이 있으면 콧덕준은 자전거를 몰고 집을 나서야 했다. 콧덕준이 1970년에 개인전을 한 교토의 16갤러리에 김구림도 개인전을 가졌다. 둘은 나이도 비슷했고 실험미술을 한다는 공통점도 있었다. 청춘들은 교토의 밤거리를 함께 쏘다녔다.

'10개의 계량기' 국립현대미술관 전시

콧덕준은 재일교포 화가 콧인식(1919-1988)과 돈독한 관계였다. 1974년 박서보가 도쿄에 왔다. 콧덕준 부부는 박서보를 만나기 위해 생후 4개월된 둘째 딸 리리를 안고 동경으로 갔다. 그곳은 콧인식의 개인전 오프닝이었던지도 모른다. 콧인식과 친했던 작곡가 김옥운이 나타났다. 패티김과 헤어진 직후의 김옥운은 다시 동경으로 활동무대를 옮겨 혼자서 쓸쓸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김옥운은 마치 자신의 딸을 안아보듯, 어린 리리를 안고 마냥 좋아했다.

콧덕준과 한국 미술인과의 만남이 폭넓어졌다. 화가 윤형근(1928-2007)이 교토의 집에 찾아와서 이들을 머물렀다. 김복기, 김진두 등 많은 한국의 미술인들이 교토의 콧덕준을 찾았다. 콧덕준은 이대 후론에 오피스텔을 하나 구하기도 했다. 서울을 찾아가면 이대원(1921-2005)이 반겨주었다. 1996년 콧덕준이 도쿄 유라쿠초의 아사히신문 미술관에서 개인전을 할 때 이대원 부부가 찾아와 주었다.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콧덕준은 한국에 대한 기억의 원풍경이 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만큼은 몸이 끈질기게 기억하고 있다. 경남사람들은 미꾸라지를 간 다음 배추 우거지 등을 넣어 맑게 추어탕을 완성한다. 여기다 제피(초피)가루를 넣는다. 여전히 많은 한국인들이 살아가는 교토의 구조, 십조에는 한국식 추어탕 가게가 있다. 콧덕준 부부는 거기서 추어탕을 사와서 먹는데 제피를 듬뿍 넣는 게 콧덕준의 버릇이다. 싸한 추어탕에서 "덕준아 밥 무로 오이라"하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데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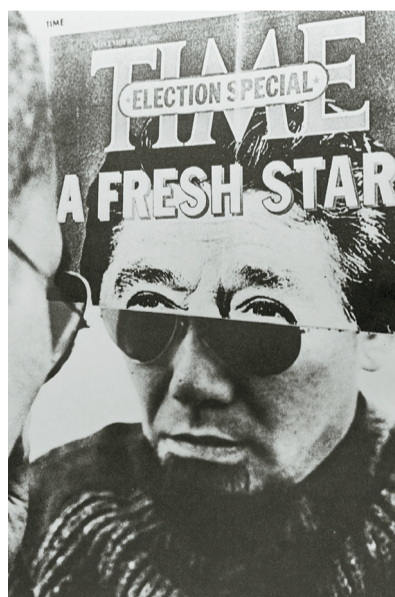
콧덕준은 2012년 기독교인이 되었다. 주말마다 집에서 가까운 가정 교회를 찾아가는 게 부부의 큰 기쁨이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왼쪽부터 김나나-콧덕준 부부, 박서보-윤명숙 부부. 1974년 서울에서(왼쪽). 콧덕준의 대표작 중 하나인 '대통령과 콧' 시리즈에 속한 작품인 '레이건II와 콧' (1985)

〈사진 황민〉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